

제주 IT기업의 건축에 내포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김형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A Study on the Locality Implied in the Architecture of Jeju IT Companies

Hyoungjun K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건축의 지역성을 주제로 제주지역 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중 마지막 단계의 연구논문으로서 ‘해석’과 ‘현상’의 범주에서 드러나는 지역성 외에 다른 것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개의 제주 IT기업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에 반영된 요소는 상당히 미흡했다. 이는 IT기업의 건축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IT 건축에서 보이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요소를 정리하면, 건축 개념으로 사용된 바람, 오름이며, 외부 마감으로 사용된 제주석이다. 결론적으로 바람, 오름, 제주석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IT건축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특성들은 해석적 지역성과 현상적 지역성의 범주 안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곧 제주건축의 지역성은 해석적, 현상적 범주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IT기업, IT건축, 제주, 지역성, 해석적 지역성, 현상적 지역성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locality in architecture in Jeju with the theme of locality of architecture. This paper, as the last research paper in this series of studies, is a paper that verifies whether there is anything other than the locality revealed in the categories of ‘hermeneutic’ and ‘phenomenal’. To this end, in this pap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of five Jeju IT compan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elements reflected in the architecture in terms of the locality of Jeju were quite insufficient.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corporate image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architecture of an IT company. Nevertheless, if we summarize the element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n IT architecture, it is the wind and oreum used as architectural concepts, and Jeju stone used as the exterior finish. In conclusion, it could be seen tha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wind, oreum, and Jeju stone were used in IT architecture,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se characteristics were within the scope of interpretive locality and phenomenal locality. Soon, it was found that the locality of Jeju architecture was within the hermeneutic and phenomenal category.

Key words : IT Company, IT Architecture, Jeju, Locality, Hermeneutic Locality, Phenomenal Localit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21 scientific promotion program fund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youngjun Kim(kimhj@jejunu.ac.kr)

Received June 30, 2022

Revised July 15, 2022

Accepted July 20, 2022

Published July 28, 2022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건축의 지역성을 주제로 한 연구로서, 제주지역 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건축의 지역성을 탐구하고 이를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어를 찾고자 다양한 대상을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분석을 토대로 두 개의 개념어를 도출하였다. 최근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념어는 '해석적 지역성'과 '현상적 지역성'이다. 이 두 개의 개념어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제주지역 건축을 건축가별, 주제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첫째로 제주의 이타미 준 건축을 분석하여 '종합적 지역성'과 '가치적 지역성'을 도출하였다[1]. 종합적 지역성과 가치적 지역성은 제주의 안도 다다오 건축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되었다[2]. 둘째로 제주의 현대건축 분석하여 '해석학적 지역성'과 '현상학적 지역성'을 도출하였다[3]. 셋째로 제주의 카페건축을 분석하여 '현상적 물성', '해석적 일상', '서사적 시간성'을 지역성의 구현 방식으로 도출하였다[4]. 일련의 연구를 통해 파악한 것은 제주지역 건축이 형태와 배치 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지역성은 결국 '해석'과 '현상'이라는 점이다. 제주지역의 여러 건축을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하여도 결국 '해석'과 '현상'의 범주 내에 지역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제주건축의 지역성에서 '해석'의 범주는 제주의 역사, 문화, 안거리와 밖거리 같은 민가의 배치 등을 재해석하여 건축계획이나 배치에 적용하는 것이었으며, '현상'의 범주는 현무암, 송이 등 제주만의 건축적 재료의 사용, 민가의 지붕형태와 물매 등을 건축형태와 입면재료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중 마지막 단계의 연구논문으로서 '해석'과 '현상'의 범주에서 드러나는 지역성 외에 다른 것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주의 IT기업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제주의 IT기업 건축물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IT기업의 경우 첨단정보산업을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에 기업이미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특성상 첨단정보산업의 이미지를 기업 건물에 담아야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드러내거나

표현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기업 건축물이 지역성을 담으려고 하였다면, 그 지역성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지역성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IT기업에 내포된 지역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곧 고성능의 여과기처럼 핵심적인 지역성을 추출하기 위해 IT기업의 건축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IT기업의 건축을 분석하여 제주지역 건축의 지역성이 '해석'과 '현상'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 검증을 통해 제주지역 건축의 지역성으로 '해석적 지역성'과 '현상적 지역성'을 개념화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제주지역에 IT기업은 많지 않다. 자생적으로 성장한 대형 IT기업도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육을 가진 IT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기업들도 육지부에서 이전한 기업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IT기업 건축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초기부터 IT기업 건축으로 계획되고, 건물 전체가 IT기업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 IT기업 건축은 표 1과 같이 다섯 개다. 2006년 준공된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12년 준공된 '카카오본사(구 스페이스닷원)'와 '넥슨 컴퓨터박물관', 2013년 준공된 넥슨 지주사인 'NXC', 2017년 준공된 넥슨 자회사 네오플 사옥인 '네오마루'가 연구대상이다.

Table 1. Jeju IT Companies' Architecture of Study

Architecture	Architect	Building Scope	Built Year	Structure
Institute of Daum Communication	Yoo Sukyeon	B1/3F	2006	RC
Kakao HQ	Jo Minseok	B1/5F	2012	RC
NXC	Yang Gun	B1/4F	2013	SRC+TSC
Nexon Computer Museum	Yang Gun	B1/3F	2013	RC
Neomaru	Shin hosup	B2/4F	2017	RC

본 연구는 위 다섯 개의 건축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설계당시 건축설계에 포함된 지역성의 개념이 있었는가를 분석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설정된 지역성의 개념과 실제로 구현된 지역성의 실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네 개의 IT기업 건축물에 내포된 지역성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 IT기업 건축의 지역적 특성

2.1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제주시시에 위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건축가 유석연의 작품으로 2006년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건물명은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였으나 다음과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로 합병하면서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로 변경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분절된 사각형 형태로 입면에 약간의 곡면을 부가하였다. 외부 마감은 적삼목 우드사이딩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하였다. 내부 마감에 송판무늬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Fig. 1. Institute of Daum Communication, 2006

건축가 유석연은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설계개념을 설명하였다. “윈드인스트루먼트(Wind Instrument)라는 개념이다. 제주도의 바람을 건물에 도입하는 것과 다음(多音)이라는 기업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여 다른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지는 관악기나 파이프오르간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경우 바람은 사람들의 이동과 시선의 움직임, 사람들 사이의 소통, 자연환경과의 보이지 않는 교감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동의 개념을 내포한다[5]”

건축가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반영한 제주적인 것은 '바람'이었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에서 바람을 건축개념으로 가져온 것이다. 제주의 바람을 건축개념을 차용하고, 바람이 가진 속성을 기업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축의 메인 기능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 카카오본사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카카오본사는 건축가 조민석의 작품으로 2012년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에는 포탈서비스 기업인 다음의 본사였다. 준공 시

건물명도 '스페이스닷원'이었으나,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현재는 카카오본사 건물이 되었다.



Fig. 2. Kakao HQ, 2012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형 매스를 수평적으로 적층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슬라브와 지붕의 마무리 부분을 곡면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곡면 사각형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형태구성에 대해 영감을 준 것은 제주의 오름이었다. “이 건물은 다음의 기업 철학인 개방과 소통 뿐만 아니라 제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스페이스닷원은 툭툭 튀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 듯한 여느 IT 기업 사옥과 확연히 다르다. 제주 오름과 동글동글한 다음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다음 본사 외관은 하늘로 쪽쪽 뻗은 고압적인 사무 빌딩과 달리 작은 언덕에 기대어 땅에 순응하는 모습이다[6]”

제주의 오름은 작은 화산 또는 기생 화산이라는 뜻으로 제주가 화산으로 분화하여 생성될 시 섬 전체에서 분화된 작은 화산 봉우리이다. 카카오본사는 이러한 제주의 오름을 형태적으로 차용하고, 내부는 제주에 널리 분포된 화산동굴에서 영감을 받아 붉은 화산 송이석 석상의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한 것을 알 수 있다.

2.3 NXC와 넥스 컴퓨터박물관



Fig. 3. Front view, NXC, 2013

NXC는 게임회사인 넥슨의 지주회사이다. 원래는 서울에 본사가 있었지만, 2013년 제주에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 사옥을 신축하면서 바로 인접 대지에 '넥스 컴퓨터박물관'도 신축하였다. 넥스 컴

퓨터박물관은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박물관이기도 하다.

이 두 건축물 모두 건축가 양건이 설계하였다. 양건은 제주출신 지역건축가로 활동 중이며, 지역성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건축가이기도하다[7].

전체적인 형태는 이탈리아 팔라쵸 형식의 사각형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면부의 모서리를 기둥 없이 비워둔 것이 특징적이다. 양건은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호모 루덴스 실바’라는 개념을 적용했다. 호모 루덴스 실바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게임회사의 이미지와도 닿아 있다. “건축가 양건은 ‘호모 루덴스 실바’라는 개념에 따라 NXC 센터 연구동에 놀이하는 인간들의 공간을 풀어냈다. 단순히 풀어냈다가보다는 각각의 성격을 가진 공간을 나무가 우거진 숲처럼 프로그래밍했다. 내부공간은 사무, 회의, 휴게, 서비스공간이 각각의 영역을 가지지만 이를 네트워크처럼 배치하고, 오픈스페이스와 가변형 파티션을 통해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9]” 이와 같이 양건은 호모 루덴스 실바의 개념에 따라 평면과 공간을 계획하였다.

전면부 비워진 모서리가 특징적인데, 이것은 ‘국내 최고의 게임회사라는 상징성을 하이테크를 통해 부여하기 위한 장치’였다[7]. 중정을 가진 사각형 형태와 고밀도 압축 목재패널, 멀티코팅유리의 외장재는 IT기업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그러나 건축개념이나 형태에서 제주적인 특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IT기업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하이테크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주적인 이미지나 지역성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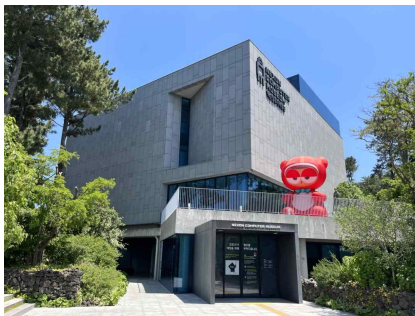


Fig. 4. Nexon Computer Museum, 2013

넥슨 컴퓨터박물관도 사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사면체에 가까운 형태가 IT기업의 정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태나 공간계획에서 NXC처럼 전체적으로 제주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외부마감이 제주석으로 되어 있어, 제주 지역의 지역적 물성을 담고자 한 의도는 파악된다.

2.4 네오마루



Fig. 5. Neomaru, 2017

네오마루는 넥슨의 계열사인 네오플의 사옥이다. 건축가 신호섭이 설계하였으며, 2017년 준공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연 지형에 맞추어 배치가 되어 있다.

네오마루의 경우, IT기업의 상징성이나 제주지역의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굳이 찾는다면 넥슨 컴퓨터박물관처럼 외부마감이 제주석으로 마감되었다는 점이다.

3. IT기업 건축에 내포된 지역성

연구대상인 다섯 개의 건축작품을 살펴본 결과, 제주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에 반영된 요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는 IT기업의 건축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의 구성도 IT기업 종사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IT기업 건축물 설계 시 건축가가 지역성의 반영으로 가져온 개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IT기업 이기에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될 지역성을 부여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섯 개의 건축물에서 보이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를 정리하면, 건축개념으로 사용된 바람, 오름이며, 외부마감으로 사용된 제주석이다.

3.1 해석적 지역성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석적 지역성이란

“제주전통민가의 공간구성, 신화적 의미, 인문사회적 배경 또는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제주민의 삶의 양식 등 제주가 가진 건축과 문화의 정체성을 건축가가 탐구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건축에 구현하는 지역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8]. 제주에 있는 다섯 개의 IT기업 건축을 살펴본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바람’이다. 제주의 민가는 거친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 물매를 낮게 만들고, 지붕의 새는 날아가지 않도록 짙줄로 단단히 묶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 바람은 건축설계의 모티브가 되어 형태와 공간계획의 원리로 작용했다. “제주의 바람과 다음이라는 기업개념을 모티브로 다양한 소리가 모아지는 Wind instrument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는 건축가 유석연의 언급처럼 제주의 바람은 설계의 모티브가 되어 건축에 적용되었다[10]. 이러한 과정은 바람이 많은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재해석하여 건축에 내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적용된 지역성은 해석적 지역성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IT기업 건축에서는 해석적 지역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건축가의 설계 개념에 포함된 것도 없으며, 형태나 공간구성에서도 그 모티브를 찾기 어려웠다.

3.2 현상적 지역성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상적 지역성이란 “제주전통민가의 형태나 제주 고유의 재료인 현무암, 송이 등을 사용하거나 제주의 자연이나 경관적 요소, 즉 바다, 오름, 돌담 등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9]. 연구대상 다섯 개의 건축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름과 제주석이다. 오름은 제주에만 있는 자연이며, 제주 고유의 경관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오름은 제주지역의 건축 중 자주 차용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카카오본사에 내포된 오름은 제주지역의 현상적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석은 송이와 함께 제주지역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재료 중 하나이며, 제주지역 건축가들이 제주의 지역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제주석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제주석이 검은 현무암이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지역 건축가들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주고자 할 때 건물 외부 마감에 제주석을 자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제주석은 지역성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넥슨 컴퓨터박물관과 네오마루의 외부마감을 제주석으로 했다는 것은 이러한 제주만의 지역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 요소를 현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의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주석을 사용한 두 개의 IT건축에 적용된 지역성은 현상적 지역성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제주건축의 지역성을 연구 주제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있고, 이를 몇 개의 단어로 정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건축의 지역성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것은 현재에도 제주지역의 많은 건축가들이 지역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제주지역 건축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이테크와 첨단 이미지를 드러내야 하는 IT기업의 특성상 IT기업 건축에서 지역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기업 건축에 내포된 지역성이란, 그것은 지역성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의 다섯 개 IT기업 건축을 살펴본 결과, 바람, 오름, 제주석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특성들은 해석적 지역성과 현상적 지역성의 범주 안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곧 제주건축의 지역성은 해석적, 현상적 범주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제주건축의 지역성이 해석적, 현상적 범주에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제주지역 건축가들의 지역성 논의에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외부마감에 제주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제주의 지역성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주석의 사용이 현상적 지역성의 범주 내에 있지만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해서 지역성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인 다섯 개의 IT기업 건축이 해석적, 현상적 범주 내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충분히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역성을 발현할 수 있는 요소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형태나 공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제주석

외부마감만으로 제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어떤 것이 제주적인 건축이며, 어떤 것이 충분히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건축에 사용된 요소들이 해석적, 현상적 지역성의 범주 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의의이자 역할이라 할 것이다. 제주에서 지역성이 충분히 발현되거나 드러나는 건축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김 형 준(Hyoungjun Kim)

[정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IT건축, IT건축설계, IT기업의 지역성
- E-Mail : kimhj@jejunu.ac.kr

REFERENCES

- [1] H. J. Kim. (2016).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Locality about Itami Jun's Architecture in Jeju.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2), 29-36.
- [2] H. J. Kim. (2016).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Locality about Ando Tadao Architecture in Jeju.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6), 13-20.
- [3] H. J. Kim. (2018). A Study on the Realization Method of Locality about Jeju Contemporary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46-51.
DOI : 10.5762/KAIS.2018.19.3.46
- [4] J. I. Kim & H. J. Kim. (2021). A Study on the Cafe Architectur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6), 107-112.
DOI : 10.22156/CS4SMB.2021.11.06.107
- [5] S. Y. Yoo. (2006). Report for Daum Global Media Center Project. *Architect*, 8, 64-65.
- [6] Y. K. Kim. (2012). Daum Space dot One: an Office Space with a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with Jeju. *Monthly Design*, 11, 121-128.
- [7] G. Yang. (2014). The Essence of Jeju Architecture DNA flowing in My Body. *Jigan, Autumn*(3), 28.
- [8] H. J. Kim. (2014). The existence and difference of Hermeneutics. *Jigan, Spring*(1), 64-65.
- [9] H. J. Kim & S. H. Lee. (2020). A Study on the Locality of Jeju Cultural Architecture.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3), 55-61.
- [10] S. Y. Yoo. (2012).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Office Spa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8), 3-10.